

제 1 교 시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권  
말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해 주시죠.

**찬성 1**: 최근 우리 학교에는 몇 차례의 폭력과 절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CCTV가 정문에만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 폭력과 절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1**: 학교 폭력이나 절도 사고 예방에 CCTV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CCTV는 사건이 발생된 후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는 데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불과합니다.

**찬성 2**: 반대 측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만,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 7개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CCTV 설치 후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의 76.5%와 학부모의 67.0%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2**: 일부 학교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교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내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신과 전문의는 “CCTV 등으로 인해 타율적인 통제에 익숙해질 경우 향후에 CCTV가 없으면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이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는 생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찬성 3**: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등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내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 3**: 물론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1. 토론 참여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최근에 벌어진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군.
- ② 반대 1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군.
- ③ 찬성 2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군.
- ④ 반대 2는 한정된 자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군.
- ⑤ 찬성 3은 다른 사례들을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군.

## 2.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CTV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활용될 뿐이다.
- ②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 ③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④ CCTV의 설치 효과를 거두려면 실시간으로 감독할 인력이 필요하다.
- ⑤ CCTV를 통해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3. &lt;보기&gt;의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한다고 할 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계와 경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경우 강·절도 사건이 설치 지역은 물론 CCTV가 없는 인접 지역까지 감소했고, 폭력 범죄는 CCTV 설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계획성이 강한 강·절도와 우발성이 강한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CCTV가 교내의 우발적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내세워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② CCTV가 절도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③ CCTV가 인근 학교의 폭력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찬성 측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면서 반대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학교보다 일반 지역이 더 높음을 들면서 반대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4 ~ 5] 다음은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애 : 새롭아, 요즘 정미, 화영이와 말도 잘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너희 삼총사 무슨 일 있니?  
 새롭 :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실은 말이야..... (한숨을 쉬며) 아니야, 됐어.  
 인애 : 웬 한숨이야? 뭔데? 괜찮아. 말해 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새롭 : 알았어. 실은 일이 좀 복잡해. 정미가 나에게만 털어 놓은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화영이에게 그 비밀을 말해 버린 거야. 바보같이.....  
 인애 : (새롭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롭 : 화영이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정미에게 그 비밀에 관해 물어 봤대.  
 인애 : 아,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구나. 정미가 많이 화났겠네.  
 새롭 :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어. 지금도 그렇고.  
 인애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니?  
 새롭 :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도 정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인애 : 응, 그렇구나. 그런데 화영이하고는 왜 말을 안 하는 건데?  
 새롭 : 내가 정미의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영이에게 따지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일 가지고 굳이 따지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 내가 잘못된 거니?  
 인애 : (손사래를 치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  
 새롭 : 휴,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기는 하다. 그런데 정미와 화영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인애 : 정미의 경우는 정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화영이에게는 지난 화법 시간에 배운 ‘관용의 격률’에 따라 말해 보는 게 어때?

4. 위 대화에서 ‘인애’의 ‘공감적 듣기’ 태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감적 듣기’ 태도의 평가표			
평가 준거	그렇다	아니다	
•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가?	✓		..... ①
•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는가?		✓	..... ②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는가?	✓		..... ③
•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였는가?	✓		..... ④
•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였는가?		✓	..... ⑤

5. <보기>를 참고할 때,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름'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손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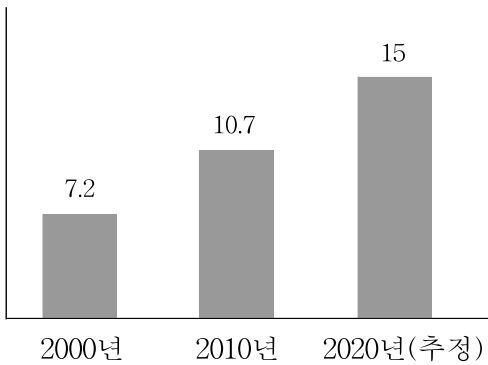
- ①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② “나도 실수를 했고, 너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③ “네가 정말로 나에게 사과하려했다면 그렇게 나에게 짜증을 내서는 안 됐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④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⑤ “갑자기 내가 화를 내서 당황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6. <보기>를 활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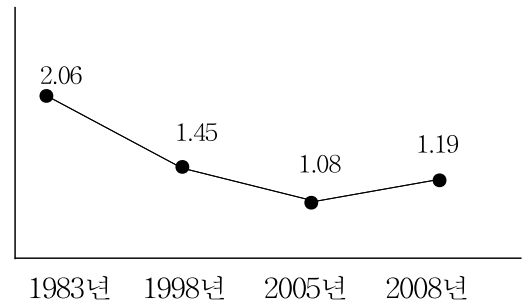
< 보 기 >

(가) 통계자료

㉠ 우리나라 노령 인구 비율(%)



㉡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



(나)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상위 4가지)

순위	결과	비율
1	자녀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45%
2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18%
3	자녀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10%
4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3%

(다) 전문가 인터뷰 자료

UN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15~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더욱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이행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 교수 -

- ① (가)의 ㉠과 (나)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② (가)의 ㉠과 (다)를 활용하여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③ (가)의 ㉡과 (나)를 활용하여 출산율 저하 경향과 그 원인을 제시한다.
- ④ (가)의 ㉡과 (다)를 활용하여 고령화의 한 원인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7. 다음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이다. <보기>는 공원 곳곳에 게시할 공고문으로서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불법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상점 외의 곳에서 김밥,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 < 보 기 >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 음식물 취사 
- ◎ 애완동물 관리 소홀 
- ◎ 허가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이러한 행위를 보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 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재배열해야겠어.
- ② 제목은 경어를 사용해 독자의 거부감을 줄여야겠어.
- ③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해야겠어.
- ④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 ⑤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말로 항목화해야겠어.



8.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재’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사 목적

-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글쓰기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 조사 내용 및 방법

-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
  -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 검색
- 우리 지역 문화재의 보전 실태
  - 탐방 조사
- 우리 지역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문화재 보전 방안 모색
  - 인터넷 검색 및 타 지역 사례 수집 등
- 전문가의 의견
  - 방문

-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통계자료도 검색한다. .... ①
-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②
- 전문가 중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전문가에게는 궁금한 내용을 질문지로 만들어 답을 얻는 서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다. .... ③



■ 보고서의 제목과 차례

- 제목 : 우리 지역 문화재의 종류
- 차례
  1. 조사의 방법
    - 설문 조사, 문헌 조사, 인터뷰 조사
  2. 설문 결과의 분석
  3. 다른 지역의 사례
  4. 전문가의 의견
  5. 요약 및 정리

- 조사 목적과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바람직한 보전 방법’으로 고친다. .... ④
- 보고서의 일반적 형식을 고려하여 ‘조사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⑤

## 9. 다음은 강연 원고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베이터 타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현대인이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이미 그 안에 네 명이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위하여 옆으로 비켜섭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누구는 다른 사람이 탈 수 ㉡ 있거나 자신의 짐을 벽 쪽으로 약간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아무런 말도 없이, 눈짓을 주고받지도 않고 ㉢ 진행합니다. 누군가 “짐 좀 치워 주세요.”라고 하거나 “비켜줘야 들어가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절은 일상의 많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의 과정에서 체득하는 것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는 없지만, ㉣ 설령 그들이 이전에 비밀리에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수백 번 연습을 해 본 것처럼 각자 적절히 타인을 ㉤ 배치하며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리는 사람, 타려는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어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도록’으로 바꾸어야겠어.
- ③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하게 합니다’로 고쳐야겠어.
- ④ ㉣은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치’로 수정해야겠어.
-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배려’로 바꾸어야겠어.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11.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분절성
- ② 언어의 규칙성
- ③ 언어의 창조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사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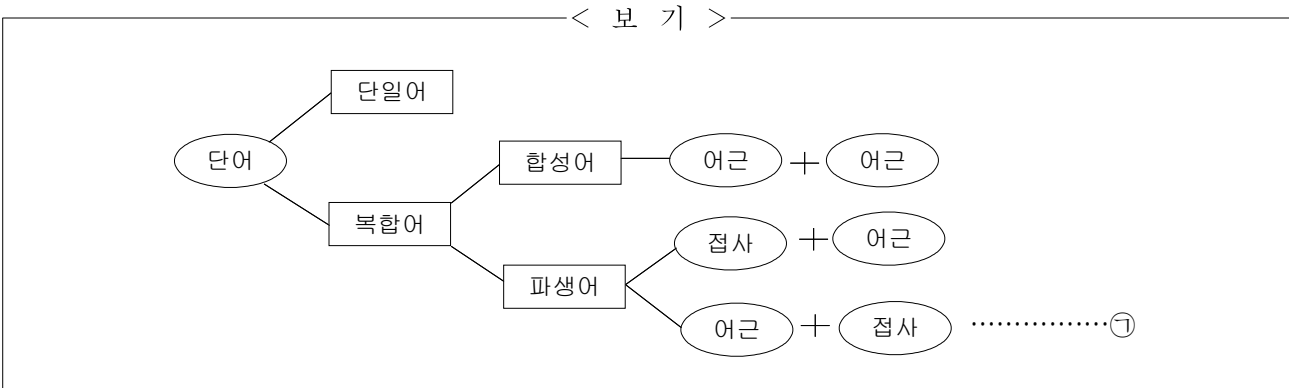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늪 앞’은 [느밥]으로, ‘젓어미’는 [저더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음식이 맛없다. .... [마덟따]
- ② 헛웃음만 나왔다. .... [허두슴]
- ③ 걸에 먼지가 묻었다. .... [거테]
- ④ 밭 아래 논이 있다. .... [바다래]
- ⑤ 꽃을 선물 받았다. .... [꼬슬]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소리
- ② 나무꾼
- ③ 멧쟁이
- ④ 바느질
- ⑤ 지우개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리말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 ①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 ②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 ③ 창목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④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 ⑤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치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A]

I. $1+1=1$	V. $1 \bullet 1=1$
II. $1+0=1$	VI. $1 \bullet 0=0$
III. $0+1=1$	VII. $0 \bullet 1=0$
IV. $0+0=0$	VIII. $0 \bullet 0=0$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 이를 테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라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은 왼쪽 표의 ‘I’과 같이 표현된다.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거짓이 되는데, 그것은 ‘VII’과 같이 표현된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의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15.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겼다.
- ②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었다.
- ③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⑤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편하다고 보았다.

16.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두 명제를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나.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 ‘가’의 장미는 실제로 직장인이지만 주부는 아니다.  
 \* ‘나’의 정호는 실제로 축구 선수이지만 야구 선수는 아니다.

	가	나
①	$1 \bullet 1 = 1$	$0 + 0 = 0$
②	$1 \bullet 0 = 0$	$1 + 0 = 0$
③	$1 \bullet 0 = 0$	$1 + 0 = 1$
④	$1 + 0 = 0$	$1 \bullet 0 = 0$
⑤	$1 + 1 = 1$	$1 \bullet 0 = 1$

17. ㉠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기계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컴퓨터의 기계어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③ 컴퓨터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④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에게 라이프니츠의 구상이 널리 알려졌다.

18.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중요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특정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논리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겠어.
- ⑤ 글쓴이는 핵심 내용을 요약·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어.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DP(국내총생산)’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DP를 계산할 때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 그 결과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다. 다만 GDP를 산출할 때는 그해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 화폐로 매매된 것만 계산에 포함하고,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GDP를 집계 당시의 상품 판매 가격으로 산출하면 그 결과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라도 올해 물가 변동에 따라 상품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올해 GDP는 가격 상승분만큼 부풀려져 작년 GDP보다 커진다. 이런 까닭으로 올해 GDP가 작년 GDP보다 커졌다 하더라도 생산 수준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GDP가 작년보다 커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GDP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먼저 어느 해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 놓고, 산출하고자 하는 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GDP를 산출하면 된다.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지 않은 GDP를 실질 GDP와 구분하기 위해 ‘명목 GDP’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을 1995년으로 하여 2000년의 실질 GDP를 생각해 보자. 1995년에는 물가 수준이 100이었고 명목 GDP는 3천 원이며, 2000년에는 물가 수준은 200이고 명목 GDP는 6천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명목 GDP는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었지만, 물가 수준 역시 두 배로 올랐으므로 결국 실질 GDP는 동일하다.

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면 실질 GDP의 추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실질 GDP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경제지표 중 GDP만큼 중요한 ‘GNI(국민총소득)’라는 것도 있다. GNI는 GDP에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을 합산해 집계한다. 그렇다면 ㉡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수입 상품 단가가 수출 상품 단가보다 올라 대외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수출하고도 제품·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무역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GDP는 무역 손실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NI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GDP가 국민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경제의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 ②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GDP 계산에 넣지 않는다.
- ④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이 GDP 계산의 대상이 된다.
- ⑤ GDP는 총 생산물 가치에 중간생산물 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최종 생산물인 X재와 Y재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생산액과 물가 수준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X재의 생산액	2,000원	3,000원	4,000원
Y재의 생산액	5,000원	11,000원	17,000원
물가 수준	100	200	300

\* 기준 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2012년도의 '명목 GDP'를 산출하면 21,000원이군.
- ②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010년도 대비 3배 늘었군.
- ③ 2011년도의 '실질 GDP'를 산출하면 7,000원이군.
- ④ 2012년도는 2010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올랐군.
- ⑤ 201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0%이군.

21.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총생산 능력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② 생산한 재화의 총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③ 생산한 재화의 수출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④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정확히 재기 위해
- ⑤ 무역 손익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감을 정확히 재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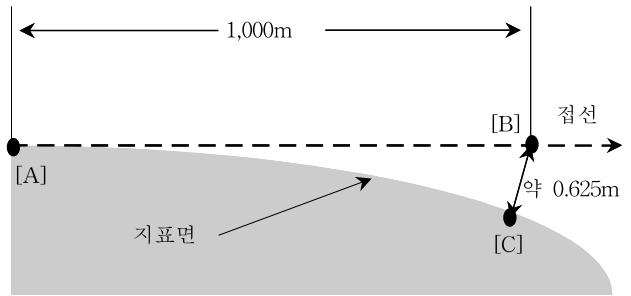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②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 ③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④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 ⑤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땅으로 떨어진다. 공을 수평으로 멀리 던지거나 심지어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도 공은 땅에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 즉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표면 5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나, 수평으로 멀리 던졌을 때 공이 1초 후면 지표면에 ㉢ 닿는다. 이 순간의 공의 속도는 약 5m/s이다. 곡률은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정도를 말하며, 지구의 곡률은 약 0.000625%이다. 옆의 그림과 같이 지표면 [A]에서 접선 방향으로 1,000m 떨어진 [B]로 이동했을 때 실제 지표면 [C]는 약 0.625m 아래에 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접선 방향으로 8,000m 떨어진 곳의 지표면은 약 5m 아래에 있다.



따라서 공을 약 8km/s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물체가 약 8km/s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표면을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다. 이 속도(약 8km/s)를 지구 접선 속도라 한다.

만약 어떤 물체가 접선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표면을 따라 돌면서 고도가 계속 ㉣ 높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에 이른 뒤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약 8km/s라는 접선 속도는 음속의 24배가 넘는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그 속도로 날게 하기가 힘들다. 또 그 속도로 날게 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릴 가능성이 ㉤ 크다. 게다가 마찰열에 타지 않게 하더라도 공기의 저항에 의해 속도가 떨어지므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위성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는 로켓을 이용한다. 이때 로켓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지구 탈출 속도는 지표면에서는 약 11km/s이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줄어든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약 8km/s로 움직이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 돌 수 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마찰 열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으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급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달이라는 자연적인 위성을 가진 이래 수많은 인공적인 위성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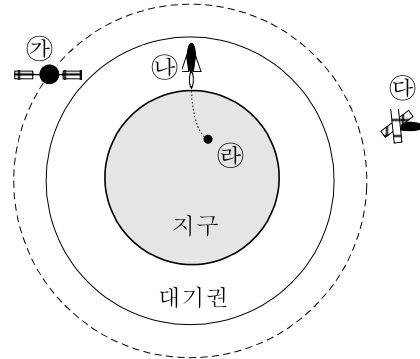
23. 밑글의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원리를 제시하고 두 원리의 의미를 밝혀야겠어.
- ② 대비되는 가설을 검증하며 한 이론의 우위를 증명해야겠어.
- ③ 화제와 관련한 이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해야겠어.
- ④ 현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해야겠어.
- ⑤ 주요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가며 원리를 설명해야겠어.

24. 밑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 : ㉠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의 로켓  
 ㉢ :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인공위성  
 ㉣ : ㉡의 발사 지점



- ① ㉠은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군.  
 ② ㉠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8km/s의 속도로 움직이겠군.  
 ③ ㉡는 대기권에서의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겠군.  
 ④ ㉡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약 11k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겠군.  
 ⑤ ㉢는 궤도를 돌던 중에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벗어났겠군.

25. 밑글을 고려할 때, ㉠을 실현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구의 곡률  
 ② 지표면의 거칠기  
 ③ 공에 미치는 중력  
 ④ 공에 미치는 공기의 저항  
 ⑤ 공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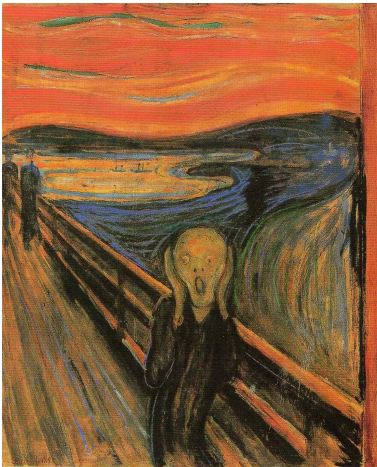
26. 문맥을 고려하여 ㉠~㉥를 바꿔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용(作用)하기  
 ② ㉡ : 도달(到達)한다  
 ③ ㉢ : 향상(向上)하다  
 ④ ㉣ : 농후(濃厚)하다  
 ⑤ ㉤ : 공전(公轉)할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뭉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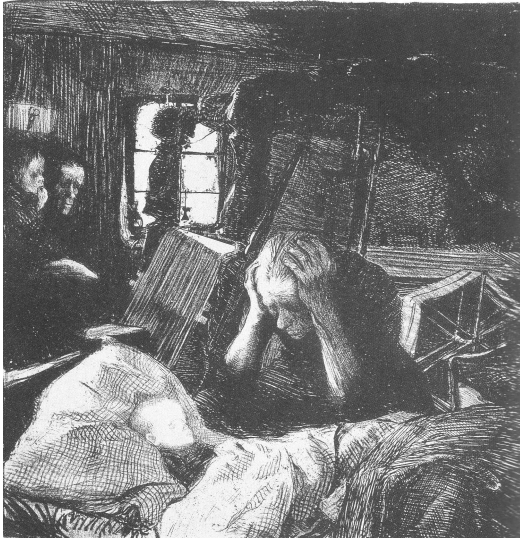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간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 보 기 &gt;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괴가 잦았던 술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1-적군묘지(敵軍墓地) 앞에서'(1956) -

(나)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의 녀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일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 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 정호승, '부치지 않은 편지'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애도의 마음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희망을 떠올리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견주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의 작가는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1947년 반동분자로 비판받자 월남한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종군하여 전쟁의 참상과 남북이 갈리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느낀 민족적 비극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애와 종교적인 화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 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에서 전쟁의 참상이 사실적으로 전해져 오는군.
- ②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를 통해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에서 작가가 월남하기 전에 받았던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군.
- ④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에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엿볼 수 있군.
- ⑤ '구름은 무심히도/북으로 흘러가고', '목 놓아 버린다.'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상기시키는군.

33.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ㄴ. 도치의 방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ㄷ. 청유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ㄹ.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ㅁ. 비슷한 통사 구조의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저러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훌끔훌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엄병덤병 토박이 반원들과 열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주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쑹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나왔나!”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버르장머리 몬 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열려 왈자지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부터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암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셋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차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가까워 오면 화차간은 무엇인가 덮어 씌운 듯 조용해졌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면, 썩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푸레하게 화차간에 찼다. 두찬이는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하원이는 한쪽 구석에서 또 울먹울먹거렸다. 화차간으로 기어 올라온 두찬이는 헉헉 숨차 하면서 광석이부터 찾았다.

“야, 광석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 갔니?”

누운 채 광석이는 귀찮은 듯이 짹한 목소리로,

“왜애, 왜 기래, 왜?”

“나, 술 마셨다. 나 오늘 암생이 했다. 사아지\* 두 벌, 근사하더라, 나 혼자 가지구 나 혼자 마셨다. 왜, 못마땅허니? 못마땅할 것 없어. 잉, 이 새끼야.”

광석이는 발끈 일어나며,

“취했음 자빠져 잘 거지. 누구까 지랄이야. 어디 가서 혼자만 처마시군.”

“말 자알 현다. 그래 난 혼자만 마셨다. 넌 부산내기덜과 왈자고오면서 마시구. 난 내 돈 내구 먹지만, 넌 술 사주는 사람두 많두나. 원래 사람이 잘났응이가, 인심이 좋아서. 난 못났구. 그렇지만 무서울 건 쪼외꼼두, 요만침두 없어. 두구 보렴, 두구 봐, 보잔 말야.”

[중략 줄거리] 집이 없어 기차의 빈 화차간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밤, 막 출발하는 기차의 화차에서 황급히 뛰어내리다가 광석이 팔을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두찬은 다친 광석을 외면하고 ‘나’와 하원이가 광석을 화차에 데려왔으나, 이튿날 광석은 죽고 만다.



두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화차 문은 열어젖힌 채였다. 어수선한 바람이 몰아들었다. 두찬이는 머리칼을 앞으로 흘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느꼈다.

“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어잉 이 새끼야,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았. 부르지도 않았. 그리고 이제 와서 팔세야, 이 새끼야. 그때 암말두 안 허군 이제 와서. 너 잘한 것 같니, 잘한 것 같애?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 뻔뻔한 새끼야.”

다시 하원이 울음소리가 딱 그쳤다. 두찬이는 내 무릎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다시 그냥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어잉, 이 척질 새끼, 개새끼, 취헨 줄 아니? 취할 탁이 있니? 이 개새끼야, 요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하다, 말뚱말뚱해. 왜 넌 암말두 안 헌. 뛰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허, 내, 이제 무슨 낫작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찌렁찌렁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뒀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칸 속에서 하원이는 지꼈었다.

“야하, 우리 이제 꼬대거리(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 없녕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호호호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리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돈벌어서, 돈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꼬대거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까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까나만 암말두 안 헌 답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꼬대거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이렇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탤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 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호호호 웃었다. 지꼈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헨. ㉠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쥬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이호철, ‘탈향(脫鄉)’ —

\* 암생이 :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사야지 : 옷감의 한 종류.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투리를 통해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초현실적 공간을 설정하여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35. ㉠에 담긴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
- ② 부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③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
- ④ 떠나온 공간에 대한 그리움
- ⑤ 불우했던 과거에 대한 슬픔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의 제목은 ‘실향(失郷)’이 아닌 ‘탈향(脫郷)’이다. 실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탈향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고향을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① ‘나’는 ‘하원’과 함께 귀향하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 ② ‘광석’과 ‘두찬’은 서로를 의지하며 실향 의식을 벗어나고 있다.
- ③ ‘두찬’과 ‘하원’은 탈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두찬’은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료들을 떠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 ⑤ ‘하원’과 ‘광석’은 처음부터 자신이 처한 실향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清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넹.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넹.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양대는 신부의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칠보금덩\*에 높직이 앉아 시녀들이 앞뒤를 옹위하며 가니, 이들 시녀들은 저마다 녹의홍상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쌍쌍으로 별려 서서 앞을 인도하고, 뒤에는 금안백마에 높직이 앉은 신랑이 자기 행운을 과시하면서 서서히 따르고 있더라.

운남산 황령이라는 고개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화려한 신행의 행렬에 접근해 왔고,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선 하인들의 제지를 받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그에게 악의가 없는 것은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남양땅 양상서 닥 노복이러니, 우리 닥 부인께서 분부하시되 이 서간을 주소저께 드리면 자연 아실 일이 있다 하시기로 바치려 하나이다.”

이런 말에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추양대였으며, 그 여자는 칠보금덩 안에서 졸음이 와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다가, 남양땅 양상서라는 말에 벌떡 놀라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본 것이었다.

신부는 이내 그 젊은이의 목적을 묻고, 가지고 온 봉서를 바치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였고, 봉서를 받아본 추양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으며, 그것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였다.

추양대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뜯어 펼쳐 들으니, 처음 순간에는 눈이 침침하여 아니 뵈기까지 하였으니, 이윽고 그 여자는 내리 읽더라.

‘박명 죄생 양산백은 삼가 글월을 주소저 좌하에 부치나니,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기로 삼 년을 함께 지내며 공부하면서 피차에 심중 맹약을 가져 불전에 도축\*하니 천지로 증참\*이 되온고로 백년을 잊지 말자 하올 때에는 피차에 남자로되 맹약함이 금석같거늘, 하물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을 안 연후에 다시 범연하리오\*. 생이 내심에 숙녀를 만나 평생을 쾌락하리라 하고, 창천께 예하였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소저가 본 닥으로 가온 후, 주야로 생각이 간절기로 남자를 찾아 꿈같이 만나 기쁜 말을 듣지 못하고, 놀라운 말씀이 청천백일에 벽력이 일신을 분쇄하매,

[A] 어이 살기를 바라리오. 죽기는 슬프지 아니하되, 학발\*쌍친을 사절하게 되니 불효막심이라. 구천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뵈오며, 또 후세의 꾸지람을 어찌 면하며, 남자를 차 생전에 다시 만나 뵈지 못하고 황천을 돌아가니 이 유한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죽기를 임하여 두어 자로 생의 뜻을 고하며, 또 생이 부모께 고하여 남자의 신행길에 물어 주시면, 남자 왕래지시에 성음이나 들어 원혼이라도 위로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원컨대 남자는 왕래지시에 한 잔 술로 무주고혼을 위하여 주시면 사무여한이라. 죽기를 임함에 정신이 혼미하여 대강 기록하노라.’

추양대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편지의 검은 먹 글씨를 번져 놓고 있었으나, 그 여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치울 생각도 아니 하고 그대로 무릎 위에 놓은 채 울고만 있더라.

그 편지는 죽기 전 압박해서 쓴 것이 분명하였으며, 또 어떻게 되어 이런 곳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얼핏 편지의 최후의 글귀를 생각하고, 편지를 가져온 창두\*를 불러 양산백의 무덤을 물어 보더라.

창두는 바로 그 옆 길 위로 산언덕에 있는, 이제 며칠도 안 된 듯싶은 극히 새로운 무덤을 가리키더라. 추양대는 금덩에서 내려 신부의 예의도 잊은 채 그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앞에 쓰러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

(중략)

불행한 신부가 눈물을 뿌리며 축문을 읽고 났을 때, 그 때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남녀는 예의 분개한 신랑만은 제외하고 죄다 감동해서 역시 눈물을 흘렸고, 난데없는 오색구름이 무덤에서 뭉게뭉게 돌기 시작하였고,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았노라고 다짐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봉분의 꼭대기에서 한 가닥 찬란한 무지개가 비쳐 올랐으며, 그런가 해서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별안간 광하고 천지가 뒤흔들리며 그 무덤이 짹 갈라져 버렸고, 이 무서운 벽력같은 소리에 모여 서 있던 남녀들은 죄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는데, 창두도 겁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겨우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해 그 소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지켜보더라.

이때는 무덤 앞에서 축문을 읽던 신부는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는 그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분개해서 신부의 뒤에 서서 지키고 있던 신랑이 그 갈라진 구멍으로 달려들어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서운 형상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치마는 발기발기 찢겨져, 그 여자의 하얀 다리가 흰꿈 보였으나 그것마저 이내 없어지고야 말더라.

— 작자 미상, ‘양산백전’ —

- \* 금덩 :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 \* 도축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뵈.
- \* 증참 : 참고가 될 만한 증거.
- \* 범연하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스럽다.
- \* 학발 :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 창두 : 사내중.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통해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전능한 입장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41.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양대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암시된다.
- ② 양산백과 추양대의 과거가 요약되어 있다.
- ③ 추양대에 대한 양산백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④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 ⑤ 양산백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42. <보기>는 윗글에 영향을 끼친 설화의 줄거리이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남장을 한 축영대는 양산백과 3년 동안 한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양산백을 좋아했지만,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한편 축영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른 가문에 시집보내려 하고 축영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한다. 뒤늦게 축영대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양산백은 집에 돌아온 후 축영대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는다. 축영대는 시집가는 길목에서 양산백의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중,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러자 무덤에서 한 쌍의 나비가 나오고, 사람들은 한 쌍의 나비가 양산백과 축영대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두 주인공은 3년간 함께 지내며 공부했다.
- ② 여자 주인공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 ③ 두 주인공을 시기하며 분개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 ④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 ⑤ 첫 만남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았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쑹덜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 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겨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 잔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하는 멧덩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희멀건히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쑤다.

-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

\* 능라주숙(綾羅紬屬) : 비단을 일컫는 말.

\* 멧덩하다 : '멍청하다'의 비표준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 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 ㄷ. 대상을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ㄹ. 직설적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44. 윗글의 글쓴이가 질문에 답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두꺼비 연적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 답: 별 희한한 연적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①

문: 두꺼비 연적을 산 일 때문에 아내 분과 다투셨다면서요?

나 답: 가난한 형편에 연적을 샀으니 아내가 화낼 만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②

문: 두꺼비 연적의 모습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나요?

나 답: 바로 두꺼비의 표정과 자세입니다. 웃을 듯 울 듯한 묘한 표정과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자세를 보니 어리석고 못나 보였으나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 ③

문: 그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답: 아마 전형적인 조선 사람일 거예요. 겉모습은 세련되지 않아도, 영악하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일 겁니다. .... ④

문: 선생님에게 두꺼비 연적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 답: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비 연적을 고독한 제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 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권  
말

권  
말